

지역 매 아리

부안군, 곰소항 해안옹벽 정비 완료

곰소항 수산시장 주변은 노후화가 심하고 매년 백중사리시 해수가 범람되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 시행한 곰소항 해안옹벽 정비사업을 추진해 이날 완료됐다.

해안옹벽 정비 내용으로는 해수범람 방지 및 주변 경관정비를 위한 곰소항 경사면 접안부에 옹벽설치를 위한 기초 지반조사, 연약지반처리 등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해안옹벽 110m 안전을 위한 난간설치 135m, 가로등 설치 및 지상부에 34대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되었다.

기존 경사면 접안시설을 옹벽정비사업 후 변화된 환경개선으로 인근 주민과 곰소항을 찾는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해안옹벽 정비사업으로 인근 주민과 곰소항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은 환경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발로 뛰는 현장행정 재가동

권익현 부안군수, 늦더위 경로당 점검·농축산 현장 의견수렴 집중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가 평소 강조해온 현장행정 소통강화를 위해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경로당과 농축산 사업장 33개소에 대해 현장 행정을 추진한다.

이번 현장행정은 여름철 지속됐던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가을까지 예측할 수 없는 태풍에 대비한 경로당 시설을 점검해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군정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권익현 부안군수는 양파선별 작업장을 비롯한 농축산 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현장행정 첫날인 20일에는 부안읍 석신경로당과 여귀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상태를 확인했다. 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부안주조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관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은 조금 수그러졌지만 아직까지도 한낮에는 무더위로 어르신

들이 활동하기 어렵고 태풍 등에 의한 재난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며 "군민의 안전은 군정의 최우선 철학이다. 군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현장행정에는 때와 장소가 없다. 현장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안군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군민소통 현장행정의 날 기간을 정해 경로당 냉방기 등 상태를 점검하고 홀몸어르신들의 안부상태를 점검하는 현장행정을 실시한 바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소생의 기적 신속한 5분!

고창군보건소, 심폐소생술 전문가 교육 실시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신속히 119에 신고해주세요"

옛날 얼굴의 여고생이 침착하게 성인모양의 마네킨(에니)의 목을 뒤로 젖혀며 기도를 확보한다. 여학생은 마네킨의 상의를 풀어헤치고 가슴중앙 부위에 손을 맞댄 뒤 깍지를 끼고, 팔이 바닥과 수직되게 자세를 잡았다. 곧이어 두 손으로 가슴을 세게 누르기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마네킨의 복뼈(갈비뼈들이 연결된 가슴 한가운데) 한가운데를 세게 누르는 이 방법은 상반신에 체중을 최대한 싣고도 반복까지 이용해야 할 정도로 힘들다. 가슴을 30차례 누르고 입 속에 숨을 세게 두 번 불어넣은 여학생이 고개를 들자 바수가 터져 나왔다.

교육에 참가한 여학생은 "일반 사람들이 수영장이나 계곡에서 물에 빠져 숨지는 뉴스를 자주 접했다"며 "심폐소생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실제 실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말했다. 날이 더워지면서 물놀이나 심잠마비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창군보건소(소장 최현숙)가 지역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심잠마비가 발생한 사람을 살리려면 '소생의 사슬'이라고 불리는 4개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빠른 119연락, 심폐소생술, 전기쇼크, 전문소생술 시행이다. 이중 심폐소생술은 심잠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로 1차적으로 소생시키는 과정인 셈이다.

고창군보건소 진료의약품 최정실 팀장은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릴 응급상황에서 초기 대응과 응급처치 요령을 터득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레드서클 캠페인' 전개

정읍시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 1~9. 7)을 맞아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

'레드서클 캠페인'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자신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바로 알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20일 시립중앙도서관을 시작으로 21일 나눔빌, 22일 농어촌공사, 23일 수성동 정읍 우체국 광장에서 찾아가는 레드서클 콘(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운영, 무료로 기초건강검진과 상담을 실시한다.

'레드서클 콘'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와 거점경로당, 국민은행, 농협, 시민들이 많이 찾는 마트 등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 27일부터 28일까지는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해 시청 1층 중회의실에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동맥경화 검사와 뇌졸중 주요 위험인자 발견을 위한 심방세동 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30일에는 고혈압과 당뇨 교실 참석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도전! 심뇌혈관질환 퀴즈왕 선발대회'를 운영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퀴즈를 함께 풀며 퀴즈왕을 선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꾸준한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사랑상품권 추석맞이 10% 특별할인 판매

부안군이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 부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부안사랑상품권은 현재 5000원권, 1만원권 2종으로 발행되며 구입을 원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수협, 국민은행을 제외한 관내 24개 소 금융기관에서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

을 구매할 수 있다. 부안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주유소, 마트, 음식점 등 현재 등록된 974개 관내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이 잔액환불이 가능하다.

또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가맹점 은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미래전략담당관(☎ 063-580-4118)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처음으로 하는 특별할인판매 행사에 소비자들은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부안사랑상품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오는 30일까지 해당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중 건설기계(자동차)로, 고창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에 6

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군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 등을 감안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상한액 이내에서 지원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폐차 지원 사업 우선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세부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 생애환경과 및 해당읍면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 간담회 개최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가칭)는 지난 19일 의회관 브리핑룸에서 한빛원전특별위원회의 구성 전 예비위원들과 함께 광주, 고창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정읍시의회 조상중, 정상섭, 정상철, 기시재, 김은주 의원과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 행동감동실 사무국장,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국민행동 운동호 위원장, 정읍농축산 관대선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폭증 사고를 시작으로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등 건물 부실시공, 기계적 결함, 한국수력원자력 운영 미숙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체 공극의 82%가 한빛원전 3, 4

호기에 발생한 만큼 특별 점검의 필요성과 원전주변 지자체의 한빛 원전에 대한 대응 방안, 원전 폐쇄시 문제점과 전력 예비율의 영향, 대체 에너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정읍시의회 의원들과 한빛원전 주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빛원전 운영실태,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올해 정읍지역 첫 벼 수확이 지난 19일 농소동 정재택 농가 논에서 이뤄졌다.

정읍시, 조생종 벼 첫 수확... 모내기 111일 만에 결실

올해 정읍지역 첫 벼 수확이 지난 19일 농소동 정재택 농가 논(농산물도매시장 부근 467㎡)에서 이뤄졌다.

이날 수확된 벼는 지난 4월 28일 모내기한 조생종 벼인 운두벼로 모내기 111일 만에 결실을 맺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비가 잦고 평균 기온이 낮았지만 출수기 이후 일조량이 많아 작년과 비슷하게 10a당 평균 720kg이 생산됐다"며 "지역 내 유통업체와 전량 6만3천원(40kg/가마)에 계약 재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태풍 등 특별한 기상이 변이 없는 한 풍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도 작년 340ha에서 올해 480ha로 신청이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읍지역 벼 재배 면적은 1만3400ha로 전북지역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조생종 1200ha, 중·만생종 1만2200ha에서 10만7200톤(조곡 기준)의 쌀이 생산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ree bottles of wine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 such as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The website www.gangsanwine.com is also provided.